

민주, 주말부터 경선 지역 발표

복수 신청 134곳...단수 후보 100곳 17~19일 추가 공모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경선 지역을 먼저 발표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1일 "공천 면적이 끝나면 종합 심사를 거쳐 후보 경선이 실시되는 지역을 먼저 발표할 것"이라며 "혼자 공천을 신청한 지역에 대한 단수 공천 발표는 당분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공천 신청자들에게 대한 면적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복수의 예비후보가 공천을 신청한 지역에 대한 공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전략지역(전략공천 검토대상 지역)을 제외한 234곳의 후보 공모 지역 중 현재 134곳이 복수 신청 지역이다. 복수 후보의 경쟁력에 현격한 차이가 없을 경우 심사 정수 상위 2명을 대상으로 경선을 한다는 게 민주당의 공천 원칙이다.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이 단수로 공천

을 신청한 64곳, 원외 인사가 단수 후보로 있는 36곳 등 100곳에 대해서는 오는 17~19일 사흘간 추가 공모를 진행키로 했다.

원외 인사가 단수로 공천을 신청한 지역은 애초 35곳이었으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불출마 선언으로 전북 군산이 추가됐다. 대구 서구 및 북갑 등 공천 신청자가 없는 4곳도 추가 공모 대상이다.

민주당이 단수 공천 지역 발표를 미루고 단수 공천 신청 지역 전체를 추가 공모기로 한 것은 당 안팎의 '불감치' 여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천을 신청한 국회의원 109명 중 64명이 단수 신청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당에서는 '무(無)경선 공천' 가능성과 함께 민주당의 인적 쇄신 의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또 민주당은 단수 신청 지역에서 적합도(경쟁력) 조사 등 정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현역 의

원 평가에서 하위 20%의 명단을 공관위 차원에서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전략지역을 추가 선정하고, 경선 지역을 확대하면서 불감치 폭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전략지역과 확대된 경선 지역에 영입 인재를 투입할 방침이다.

앞서 전날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에서 "공천 과정에서 공정하고 혁신을 잘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인적 쇄신이 '현역 지역구 의원 3분의 1 교체'를 목표로 공천을 진행 중인 한국당의 움직임과 맞물려 돌아갈 것이라 전망이 적지 않다. 민주당 내에는 단수 신청 지역 전체에 대한 추가 공모를 둘러싼 비판 여론도 있다. 하위 20%에 속한 현역 의원의 지역이 간접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피하고자 단수 신청 지역 전체에서 추가 공모를 실시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연합뉴스



여야, 2월 임시국회 17일 개최 합의...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심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 원내대표,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야당 심판 vs 정권 심판...종로 프레임 경쟁

'정치 1번지' 종로가 양당의 유력 대선주자가 맞붙는 최대 격전지가 되면서 '프레임' 경쟁도 본격화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1일 4·15 총선 출마지인 서울 종로에서 사흘째 표심 공략 행보를 이어갔다.

이 전 총리는 '이낙연 대 황교안'의 비박치가 성사된 이후 현장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아침 지하철 1·3·5호선 종로3가역에서 파란색 민주당 예비후보 점퍼 차림으로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전날에 이어 두 번째 출근 인사다. 오후에는 미술관 등이 모여

있는 평창동 평창문화공간을 찾아 지역 문화 산업과 도시재생사업, 교통 문제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황 대표는 종로 출마를 선언하며 현 정부의 실정을 강조하는 '정권심판' 프레임을 내걸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한국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부각하는 '야당심판론'을 꺼내든 상태다.

이 전 총리 측은 공식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심판론으로는 탄핵으로 조래된 사회적 분열상을 치유할 수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민주당 총선후보 경선

대통령 호칭 사용 불허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4·15 총선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경력 표기 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 전·현직 대통령 이름이 포함된 명칭의 사용을 불허했다.

최연열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관위 첫 회의를 연 뒤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대표 경력을 적용하는 공천 단계에서 전·현직 대통령 이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을 준용해 경선에서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경력을 6개월 이상 경력자에 한해 직함 사용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총선 라운지

최영호 "영산강권 역사문화지구 조성"

더불어민주당 최영호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1일 "역사·문화혁신벨트를 구축해 영산강권 역사문화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대촌·남평지역에 향약과 고싸움, 의병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전라도 천년 역사문화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남구 송암공단에 문화콘텐츠 산업벨트를 조성하여 예술가 참여형 첨단실감콘텐츠 제작클러스터 조성,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조기설립, CGI센터와 공예창작촌-대학간 문화예술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명진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해야"

대안신당 김명진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1일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며 "안정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의 구축을 위해 보다 신속하게 관련법 제정 등 법적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진 예비후보는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노인 20%)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통합적인 고령인구 돌봄서비스가 준비되어야 하며 보다 보편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천정배 "임시국회서 신종 코로나 대책 마련을"

대안신당 천정배(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2월 임시국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천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광주와 전남의 지역경제에도 비상이 겠겠다"면서 "감염증의 확산 방지와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함께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광주시와 지역 정가가 합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시와 관련 기관은 신종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관광업계, 제조업계 등에 대한 특례보증 대상의 확대와 긴급 운영자금 지원, 지방세액 감면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형석 "5·18 왜곡 황교안, 대표 사퇴하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며, 광주 북구를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최고위원은 11일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황교안 대표는 즉각 사퇴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제1야당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을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명명했던 '광주사태'로 기억하는 것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공작정치를 일삼았던 전직 공안검사의 행태와 사고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미 내려진만큼 끊임없이 이를 폄하하고 왜곡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주승용 "전남대 여수 캠퍼스 학생 증원 신청"

바른미래당 주승용 여수를 국회의원은 11일 "교육부는 여수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남대 여수캠퍼스의 첨단학과·학부 신설과 학생증원 증원 신청을 조속히 승인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여수캠퍼스는 지난 1월 석유화학 소재공학과(40명), 스마트 수산 자원관리학과(40명), 헬스케어 메디컬공학부(50명) 등 첨단학과·부 신설 및 증원을 교육부에 신청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통합 이후 지역거점대학으로서 도약이 기대됐지만 되레 단과대학 1개, 전공 10개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이개호 "황교안, 저급한 역사 인식 드러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은 11일 "(5·18을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사태'라고 부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망언은 용서받을 수 없다. 당장 광주시민들과 오월영령께 석고대죄하라"고 황 대표 사죄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황교안 망언 사태'에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의 망언이 (지지세력 결집 등을 목적으로) 의도적 발언이라면 국민 갈등을 유도하려는 저열한 술책이고, 무의식 중 발언이라면 제1야당 대표 자격이 없는 저급한 역사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박시중 "광산의 정치·경제 혁신 최선"

더불어민주당 박시중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1일 "경쟁해는 우리 당 김성진 후보가 오늘 후보직을 내려놓았다"며 "김성진 예비후보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깊은 위로를 함께 보낸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그동안 김성진 예비후보가 보여준 인간미와 경제정책 역량, 정치력과 리더십을 잊을 수 없다"며 "하나 된 마음으로 광산의 미래를 위해 우리 두 사람은 단일화를 추진했었다"고 말했다. 또 "비록 원안대로 단일화는 추진되지 못했지만, 마음을 합치는 '통합캠프', 광산의 정치, 경제적 변화를 가져올 '혁신캠프', 시민의 품에 미래를 선물할 '희망캠프'라는 두 사람의 꿈을 온전히 받들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16일 안철수 신당 광주시당 창당대회

안철수 전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국민당 광주시당 창당준비단은 16일 오후 5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시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12일엔 권은희(광주 광산) 의원의 사무실에서 광주시당 창당 발기인 대회가 열렸다. 국민당 광주시당 창당준비단장은 권은희 의원, 부단장은 유재신 전 광주시의회 의원, 준비위원은 김옥자 전 광주시의회 의원·곽복률 전 국민의당 광주시당 사무처장 등 10명이 임명됐다.

한편 국민당은 지난 9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창당 준비체제로 전환했다. 서울·경기·인천·대전·충북·세종·광주 등 7개 시도당을 창당하고 중앙당 창당은 3월 1일로 계획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1522-9341